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광복 80 빛나는 발걸음, 새로운 길

보도시점 2025.8.26.(화) 09:00 < 8.26(화) 석간 > 배포 2025.8.25.(월)

제16차 청정에너지장관회의 및 제10차 미션이노베이션 장관회의 개회

- 41개국 정부대표단, 111개 국제단체, 105개 글로벌 기업 등 1,000여명
- 의장국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력전환, 산업탈탄소화 논의 주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오는 8월 25일(월)부터 27일(수)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제16차 청정에너지 장관회의(CEM) 및 제10차 미션이노베이션(MI) 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에너지슈퍼위크(Energy Super Week)'의 행사의 일환으로 △ 2025 기후산업 국제 박람회(World Climate Industry EXPO, WCE)」와 △ APEC 에너지 장관회의와 연계하여 개최된다.

청정에너지 장관회의(CEM) 및 미션이노베이션(MI) 장관회의는 기후 에너지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청정에너지 확산 방안을 논의하고 청정에너지 기술혁신 가속화를 위해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대표적인 글로벌 민관 협력 플랫폼으로, 올해는 '번영하는 미래를 위한 역동적인 협력(Energising Cooperation for a prosperous future)'을 주제 아래, 41개 정부대표단, 111개 국제기구 등 1,000여 명이 참석한다.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기후 위기 시대에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에너지 의제를 주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정부 장차관, 국내외 글로벌 기업 CEO,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4개의 장관급-CEO급 민관 라운드 테이블에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다.

△ 전력 전환 세션에서는 전력 분야에서 기술경쟁력이 있는 LS전선, 효성중공업, 블룸에너지 등 글로벌 기업들이 각국의 장관, 차관들과 함께 AI, 데이터 센터 전기차 등과 같은 전력수요 대응을 위한 무탄소 발전설비 및 전력인프라 확충 및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전력 시스템 혁신 방안을 논의하며,

△ 산업 탈탄소화 및 에너지 효율 세션에서는 철강 등 난감축 산업 부문에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민간의 노력과 지원을 모색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과 금융 메커니즘 등을 공유한다.

또한, △ 미래 연료 세션에서는 수소를 포함한 미래 연료 활용 촉진에 관심이 높은 국가들과 현대차,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수소 관련 산업에 경쟁력이 있는 우리 기업들이 청정 수소, 암모니아, e-fuel 등 미래 연료가 갖는 산업·운송 분야의 탈탄소 기여 잠재력을 다시금 확인하고, 미래 연료의 보급 확산 및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하며,

△ 에너지 & AI 세션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엔비디아, LG에너지솔루션, 한국전력공사 등이 참여하여 각국 장관급들과 함께 AI로 인한 에너지 수요 증가, AI를 활용한 에너지 혁신이라는 AI-에너지 관계가 갖는 양면을 짚으며, 에너지와 AI가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발전해 가는 미래를 토론할 것이다.

이번 전력 전환 논의 주제는 10월에 개최 예정인 G20 에너지 장관회의에서 미래 연료 활용 논의 주제는 11월에 개회 예정인 COP30(기후당사국총회)에서도 다뤄질 예정으로, 한국은 이번 청정에너지장관회의 및 미션이노베이션회의에서 글로벌 에너지 의제를 심화하는 데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오늘날 당면한 기후 위기와 도전 속에서 에너지 전환 촉진, 에너지 안보 강화 및 에너지 기술혁신을 논의한 유익한 플랫폼이었다”라고 언급하면서 “올해 한국에서 개최하는 회의를 계기로 에너지 혁신 기술의 확산과 함께 각국이 지혜를 모아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연대의 의지를 굳게 다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APEC및청정에너지장관회의TF팀	책임자	팀 장	유재영 (044-203-5125)
		담당자	사무관	이듀정 (044-203-5706)
		담당자	사무관	윤다은 (044-203-5131)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책임자	과 장	서성태 (044-203-5150)
		담당자	사무관	배승희 (044-203-515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CEM 청정에너지장관회의 개요

□ **명칭** : 청정에너지장관회의(Clean Energy Ministerial, CEM)

□ **설립배경** : 2010년부터 시작해 청정에너지 보급·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美에너지부 장관이 주도하여 발족한 에너지장관회의

※ 주요 협력 의제는 재생에너지 보급, 전력망 연계, 스마트그리드, 에너지효율, SMR, CCUS, 전기차 등 청정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 포함

※ 워크스트림이라는 분야별 자율적 참여에 기반한 활동을 추구하며, 이니셔티브 15개와 유관 캠페인으로 활동함

□ **회원국** : 총 27개국 및 EC (총 28개)

○ 아시아(5) : 한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 아메리카(5) : 브라질, 캐나다, 칠레, 멕시코, 미국

○ 유럽(13) :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폴란드, EC

○ 아프리카(1), 오세아니아(2), 중동(2) : 남아공, 호주, 뉴질랜드, 사우디, UAE

□ **주요 회의체 및 활동**

○ **(고위관료회의 및 장관회의)** 매년 장관회의 주요 논의 의제 발굴 및 연간 활동 계획을 위한 고위급 회의 1회(상반기)와 장관급 회의 1회(하반기) 개최

○ **(워크스트림, 총 26개)** 청정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CEM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제안하고 참여하는 활동체로, △장기로 활동하는 이니셔티브와 △단기성 캠페인으로 구성됨.

※ 워크스트림별 활동 목표, 계획 등을 별도 수립 운영

참고 **MI 미션이노베이션 장관회의 개요**

1. 미션 이노베이션(Mission Innovation, MI) 개요

□ **(목적)** COP 21('15.11월) 계기, **청정에너지 공공 R&D 투자 확대** 및 **청정에너지 기술 혁신**을 목표로 출범한 글로벌 다자 협의체

○ '21년 출범한 MI 2.0은 '30년까지 합리적인 가격의 청정에너지기술 보급·확산을 위한 R&D 투자 촉진 및 글로벌 협력 활성화 추진

* MI 1.0('15~'20)을 통해 회원국의 공공부문 청정에너지 R&D 투자 확대 성과 달성

□ **(회원국) 23개 회원국과 EC** 참여, 스위스 가입 검토중('25.7월 기준)

< 회원국 참여 현황 >

미국, 영국, 중국, 일본, **한국,** 호주, 브라질, 캐나다, 칠레,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탈리아, 노르웨이, 사우디, 스웨덴, UAE, 네덜란드, 핀란드, 오스트리아, 모로코, EC

2. 주요 회의체 및 활동

□ **(연례·장관회의)** 청정에너지 기술혁신을 위한 의제 논의 등을 위해 **매년 연례회의**(상반기)와 **장관회의**(하반기)가 **각 1회** 개최

□ **(MI 운영위원회)** MI의 주요 의사결정 기구로 MI 운영을 총괄

* 한국은 '25년 호스트로서 당연직 부의장으로 '24.11월부터 MI 운영위원회 참여

□ **(미션)** 청정에너지기술의 보급·확산을 위해 공동 목표를 제시하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로 7개 미션(기술분과)으로 구성

